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대회 성료

전국 아마추어 동호인·자원봉사자 등 4000여명 참가... 아름다운 무주 경관 만끽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대회'가 29일 무주를 일원에서 마무리되며 전국에 다시 한번 '스포츠 강군 무주의 명성'을 확인시켰다.

전국에서 아마추어 동호인 및 자원봉사자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회장 장영기)·무주군마라톤협회(회장 허동일)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후원했다.

경기는 오전 9시 하프(Half)경기(21km)를 시작으로 10km(09:15), 5km(09:25)경기가 이어지며 장관을 연출했다.

모든 종목의 출발과 도착 지점은 '무주축산'으로, '하프' 종목의 선수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금강 숲길 입구, 추동 반공탑을 돌아오는 코스를 달렸으며, 10km 선수들은 무주소방서를 지나 서면교 삼거리, 강변도로 삼거리, 당산대교를 건너 도착했다.

10km에 참가한 김모씨(35)는 "작년엔 5km에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는 10km 종목에 도전했다"라며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달리면서 봄을 마중한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5km는 차산마을 원형교차로를 지나 두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대회'가 29일 무주를 일원에서 마무리되며 전국에 다시 한번 '스포츠 강군 무주의 명성'을 확인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번째 능로 입구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로,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해 장관을 연출했다.

대구에서 온 성모씨(40)는 "평소 달리기 좋아해서 전국의 마라톤 대회에 자주 참가하는데, 무주는 코스와 경관, 지원 모두 최고"라며 "작년에는 혼자 왔었는데 올해는 아내랑 아이까지 온 가족이 참가해 더 의미가 있고 기억에도 남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안전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경주 구간 도로 노면 정비 및 청소를 진행했으며, 주요 지점에 교통 통제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했다.

참가자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5개소를 전면 개방하고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또한 일요일 운영 식당 정보를 사전 전마함 누리집에 안내하고, 행사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회 경관, 지원 모두 최고"라며 "작년에는 혼자 왔었는데 올해는 아내랑 아이까지 온 가족이 참가해 더 의미가 있고 기억에도 남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대회 당일에는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마라톤협회, 무주경찰서와 협력해 대회 당일 교통안전 유도 요원, 주차 안내요원 등 75명을 배치했다.

/무주=송흥기 기자



무주군은 지난 27일 무풍면 신자유동센터에서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

무주군, "풍년 농사 기원"

영농발대식·풍년기원제 열려

무주군이 영농발대식과 풍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무주군은 지난 27일 무풍면 신자유동센터에서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 농민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영농 발대 선언, 풍년기원제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 제례를 통해 자연과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지역 농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천세열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서정일 농협 중앙회 무주군지부 관계자, 황진성 구천동농협 관계자, 김영한 무주농협 관계자 등 4명이 무주군 농민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현웅 무주군 농민회 무풍면지회장은 농업 현장에서의 헌신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편 무주군 농민회는 농민 권익 보호와 농업환경 변화 대응,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탁과 마을 자연정화, 산불 피해 삼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 매년 영농발대식과 풍년기원제를 주관하며 지역 농업인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무주=송흥기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시 활용 지역특화작목

육성기술인재 양성 교육

진안군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작목 육성 기술인재 양성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AI를 활용한 SNS 홍보물 작성과 상세 페이지 제작 등 기초 실무를 배울 수 있으며 심화 과정은 스크립트 작성, 쇼츠 제작 및 편집 등의 숏폼 영상 제작 교육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4월 3일까지이고 신청대상은 AI 분야에 관심 있는 농업인으로 과정별 10명 내외를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 접수 및 이메일 또는 네이버폼으로 신청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민원과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 군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설정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청원경찰,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해 폭언·폭행, 시설물 파손, 위협 행위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고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숙지 강화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심리 상담 지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30일 썸머 캠퍼스' 운영단체 공개 모집

장수군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학생 체류형 로컬 프로젝트인 '2026년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를 운영할 보조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는 대학생 방학 기간 동안 관내 청년단체, 농가, 관광자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장수군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4개 관내 단체·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체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소재하고 대학생 대상 로컬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단체 또는 사업자이며,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공인 △로컬 브랜드·상품·레시피 기획 및 개발 △지역행사·축제 운영 지원 △로컬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군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는 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jung67@korea.kr)으로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정확한 지적측량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진안군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본부 동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도로, 제방 등에 설치되어 토지의 분할, 경계 복원 등 모든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는 각종 도로 공사와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설치 공사로 인해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5조에 따

라 추진된다.

군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관내에 설치된 지적삼각보 7점, 지적도근점 등 총 7,584점에 대해 7월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기준점의 유무와 상태를 확인하고, GPS(위성) 측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위치의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진안 방문의 해' 현장 홍보 나서

군, 전주 한옥마을·이중호수 도서관 일원서 진행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관광과 직원을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이중호수 도서관 일원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안군의 인지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하얀 양옥집에서 운영 중인 진안 전시 '마중, 진안'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션, 용담호 등 주요 관광지과 계절별 축제, 체험 콘텐츠를 소개하고 '진안 방문의 해' 주요 혜택과 이벤트를 안내하며 관심을 유도했다.

이중호수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어 나갔다. 도서관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진안 관광자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